

소감문

교과목명	스타트업초청강연	담당교수명	박종용	강연일자	2018.11.13.화
강연제목	학생 창업과 도전			강연자	현강섭
학과 및 학년	일본학과 1학년	학번	2018049807	성명	심유빈

이번 강연자는 한양대 에리카 06학번 선배로, 강연시작 처음에 선배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떤일이 있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관해 말씀하셨다. 선배는 학교를 다니는 도중 창업을했다고 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창업에 관련된 배움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자신이 졸업한 과와는 어떤 연계되는 점이 있었는지에 관해 소개하며 말을 이어갔다. 노트폴리오 매거진이라는 "작품에 스토리를 더해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통한다"는 기획의 회사를 창업해서 올해 만 6년이 되었다 한다. 스펙(SPEC)이라는 말은 제품의 성능등에 대한 단어라 사람에게는 잘 안쓰이는 단어이기예 우리나라만 쓴다고 한다. 강연자는 이런 스펙이라는 단어보다는 커리어(CAREER)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권장했다. 커리어는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위해 그리고 목표에 대한 기회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 혹은 스토리라는 뜻으로, 스펙보다는 더욱 사람에 맞는 단어선정이라 할 수 있겠다. 스펙과 커리어의 다른점으로는 첫째 용도가 다르고, 둘째 목표가있고, 셋째 연관성이 있고, 넷째 지속성이 있다라는 점이다. 강연자가 처음 사업을 할때 그림을 파는 활동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였더니 대 실패를 하고 온라인은 실패했다는것을 알고 오프라인으로 그림을 남산으로 가져가 모두 펼쳐놓고 그림을 팔았더니 성공했다한다. 우리또한 실패를 했으면 그걸 밀고가지말고 작전을 변경하는등의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하든 걱정하지 말고 행하는게 나중에 가보면 다 커리어가 되게되니 웬만하면 무엇을 하든 다 해보는것이 좋다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겪어볼 수 있는 여러 강연자리에 참가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보면서 다른사람들과 소통해 보게 된다면 내가 고민하고있는것을 다른 사람도 고민하고 있을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사실을 다른사람을 통해 알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내 고민을 들어주는등 좋은 자리가 된다. 나도 창업을 하게된다면 선배의 조언과 선배의 경험을 본받아 경험해보며 점점 고쳐나가면 좋은 회사를 이끌 수 있게 될것만 같은 좋은 강의였다.